

지구를 지켜 온 아름다운 사람들

2019 전북인상 수상자 선정 이유



Why, 전북 환경인상 _ 김윤배 목사(삼덕교회, 강살리기임실대표)



- ✓ 김목사는 먼저 재활용 수거 체계를 잡아나가기 위해 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이 알기 쉽게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었고 빈 농약병 수거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인 분리배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농약 빈병을 모아 비닐에 담아 보관하는 이른바 “농약병 소세지”는 조월마을 분리배출 운동의 상징이 되었으며, 1톤 차량에 가득 모은 농약병을 환경관리공단에 전달하고 그 수입금(60만원 수준)을 마을에 환원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전라북도 자원순환마을로 지정되자 비닐집하장 설치 등 더욱 체계적인 쓰레기 절감, 자원순환 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 김 윤배 목사는 마을과 하천 주변 불법소각 및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토양과 수질 하천오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주민 교육과 실천을 통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1-2 Why, 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 재활용분리배출 활동



1-3 Why,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농약병 소시지



1-4

Why, 마을 하천을 맑게 흐르게... 숲망 설치~ 웬만한 건 다 맡아 버리는 목사님!



- 마을과 하천 주변 불법소각 및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토양과 수질 하천오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주민 교육과 실천을 통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하는 데 앞장서 옴. **웬만한 건 다 맡아 버리는 목사님!**

Why, 마을 하천을 맑게 흐르게... 숲망 설치~ 웬만한 건 다 말아 버리는 목사님!



“안 버리고, 안 태우고, 안 묻고 (폐용기, 폐비닐, 농약병)농촌자원순환 3GO운동” 을 전개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아트 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화공원 및 한 평 화단을 조성해 환경체험 마을로 나아갔습니다. 알기 쉬운 주민 교육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이 만든 플라스틱 재활용 아트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6 Why, 특색 있는 매력과 즐거움을 주는 환경 체험 마을을 만들어요~



- ✓ 김목사의 바람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마을 경관을 보존하고 재활용을 활용한 아름다운 자원순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 ✓ 일상 속 생활 습관을 바꾸고 쓰레기 수거와 분리배출, 재활용 촉진 시스템을 만들어 마을 환경과 하천 수질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김윤배 목사를 전북 환경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6 Why 지구와 환경을 지켜 온 조월 마을 용사들!



Why, 전북 환경단체상 -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를 지키는 백구 부용 주민



✓ 김제 백구 주민들은 2018년 7월, 정부와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선정에 맞서 일년 넘게 기자회견, 일인시위, 멸종위기종 현장조사 등 꾸준히 반대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부용제 동식물 조사, 도의회와 스마트팜 토론회와 청와대 농업비서관 면담, 일방적인 지질조사 저지, 멸종위기종 독미나리 불법 이식 현장 적발 등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하수 고갈, 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부용제의 가치를 말해주는 멸종위기 식물들



◆ (식물상, 169종) **멸종위기종 II등급 3종**(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과 **희귀식물 3종**(벗풀, 가시연꽃, 독미나리),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I 등급 4종**(왕버들, 참느릅나무, 노랑어리연꽃, 뚜껑덩굴), **V등급 3종**(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으로 나눌 수 있음

- ✓ 반대대책위는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기본계획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해왔습니다.
- ✓ 또한 도내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 정보 공개청구, 2017년 지하수 연보를 분석한 결과, 김제시는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지하수 함양율 대비 이용량이 99%로 포화 상태이고. 특히 김제시 백구면은 시 취수계획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구면 농업용 관정의 68%인 748개가 영향권인 월봉리 등 4개리에 위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Why, 전북 환경단체상 -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를 지키는 백구 부용 주민



- ✓ 반대대책위는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기본계획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해왔습니다.
- ✓ 또한 도내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 정보 공개청구, 2017년 지하수 연보를 분석한 결과, 김제시는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지하수 함양율 대비 이용량이 99%로 포화 상태이고, 특히 김제시 백구면은 시 취수계획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구면 농업용 관정의 68%인 748개가 영향권인 월봉리 등 4개리에 위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4 Why, 전북 환경단체상 -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를 지키는 백구 부용 주민



- ✓ 반대대책위는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기본계획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해왔습니다.
- ✓ 또한 도내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 정보 공개청구, 2017년 지하수 연보를 분석한 결과, 김제시는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지하수 함양율 대비 이용량이 99%로 포화 상태이고, 특히 김제시 백구면은 시 취수계획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구면 농업용 관정의 68%인 748개가 영향권인 월봉리 등 4개리에 위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Why, 전북 환경단체상 -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를 지키는 백구 부용 주민



- ✓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조성과 관련한 지역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습지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 ✓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여섯 달 째 매주 주민 전체 회의를 열고 있으며, 김제시청과 도청, 환경청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용제 보존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대책위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 부용제의 생태환경 자산과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 유산, 백구 포도의 명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 ✓ 2년여에 걸쳐 30만 전라북도 천주교 신자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환경보전 필요성에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유인물을 제작하여 전라북도 소재 96개 성당에 배포함으로써 신자들이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 또한 매주 모든 신자들이 구독하는 '숲정이'라는 주간지에 환경운동의 필요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플라스틱 덜 쓰기 운동 광고를 게재함.
- ✓ 샴푸 거품은 빛을 차단함으로써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주장함.

인쇄하기

1의 3페이지

인쇄하기

X

인쇄

HOME > 문화연예 > 종교

천주교 전주교구,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선언

김보현 | 승인 2018.09.30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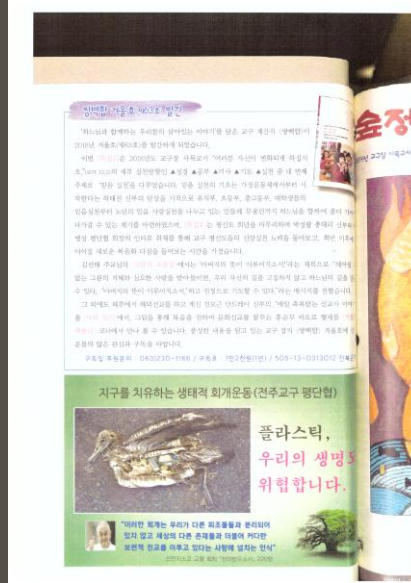
평신도사도직단체협 주최, 생태적 회개 운동 선언서 발표
각 교회별 활동 점검, 분리수거종이컵 안 쓰기 등 지속 계획



지난 9월 29일 천주교 전주교구청에서 박성팔 지도신부와 한병성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 회장 및 환경회 부회장 등 150여 명이 모여 '생태적 회개 운동-플라스틱 안 쓰기 실천'을 선언했다.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에 담아드릴게요." 최근 우리 일상의 큰 변화 중 하나. 올 여름부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일회용품에 담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주 내용으로



12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일과 사람

• 올바른 봉사 강조하는 한병성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한 사람의 봉사가 환경을 바꿀 수 있죠"



플라스틱 분리수거 추진
북한·해외빈민들기 앞장
진정한 봉사의 의미 강조

"나부터, 그리고 주변부터 변화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아야죠, 알리고, 올바른게 봉사라고 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한병성 회장(68)의 말이다.

한 회장은 올 한해 이루고 싶은 3가지를 강조한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운동과 북한을 포함한 해외 빈민 돕기가 그것이다. 개인적인 변화일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 가까운 주변부터 함께 변화를 주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한때 한파 속에서 만난 한 회장은 새와 바다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삼켜 죽어가는 2분 30초짜리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줬다.

한 회장은 90여 개 성당에서 30만 명의 신자들이 시청하는 영상이다.

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변화를 꾀했다. 바로 분리수거다. 한 회장은 30여 년 전 동경대 초등학교 일본에 방문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당시 도착하자마자 속소 경비원으로부터 분리수거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에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라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북한과 해외 빈민 돕기로 이어졌다. 그는 도움을 주는 우리 기준이 아닌,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한 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나 해외에 북한을 보낸 경험이 있는 데, 전직수감자 북한계한 나라이다 보니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채 오열했음에도 모를 배신을 투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없는 현실에 대해 최근 재충량을 위해 필리핀으로 수송했던 플라스틱

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가톨릭에서 시행하는 '평화의 사도 운동'도 그것의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가 무트되어가는 이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앙은 일 년 중 하루 모든 헌금을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모아 놓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준비하는 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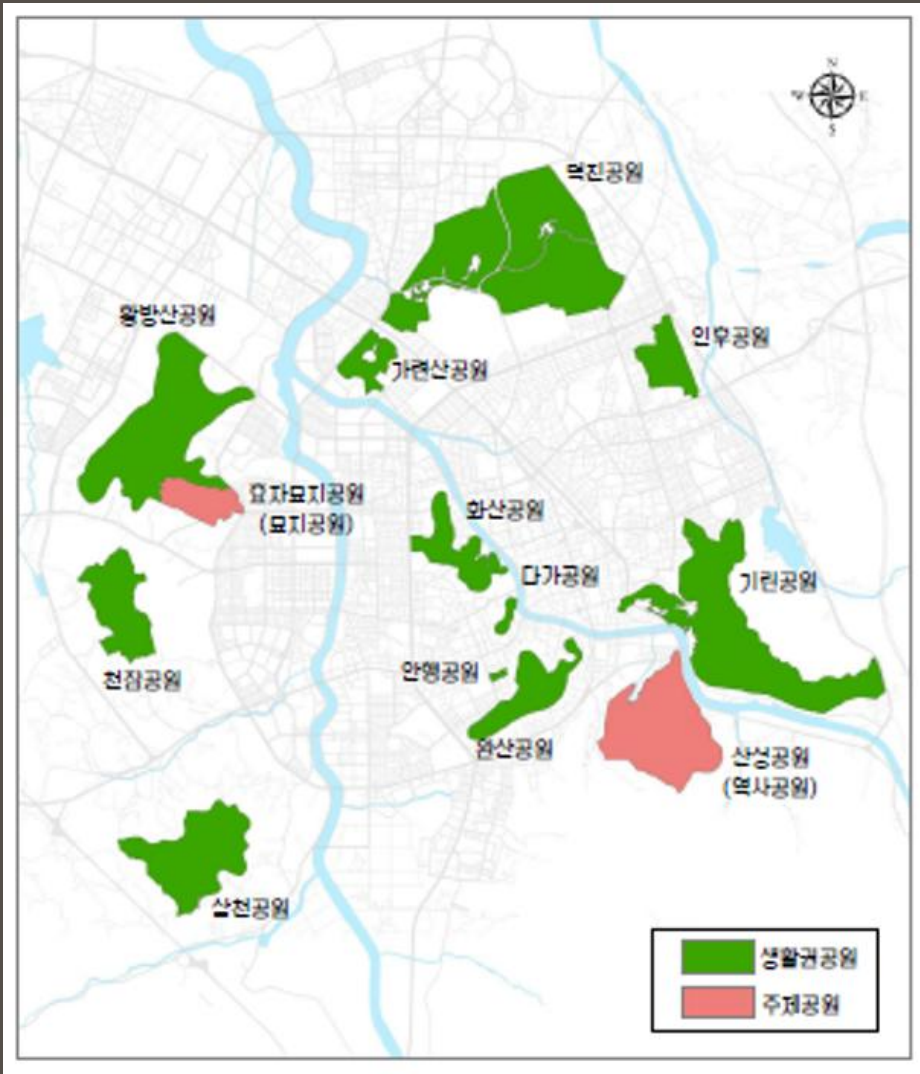
또한 해외 빈민을 돕기 위한 사업도 준비하는 차이다. 지원하고, 만나서 직접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필리핀과 페루로 정했다.

그는 "봉사는 모순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궁극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다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천주교 기자

- ✓ 12,122명에 달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매 주 여는 모임의 주된 활동주제로 환경운동을 설정하였고 그 활동결과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장바구니 사용, 개인컵 사용하기, 분리수거, 자가용 안타기 등)를 단장에게 보고해 옴. 그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약 47만건(약 40회/명)의 환경보존 실천운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2019년 11월 20일 전주중앙성당에서 있었던 사목교서 발표장에 모인 700여명의 신자들에게 환경관련 유인물(플라스틱 일회용 컵 안 쓰기 운동, 쓰레기 분리배출)을 배포하여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4-1

Why, 전북환경정책상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상당수의 지자체는 도시공원 매입의 어려움을 내세워 기업이 30%까지 아파트 등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제를 선택하기도 함.
- ✓ 하지만 전주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매입하기로 함. 이 중 가련산공원(32만㎡)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전주시도 일부 동의했으나, 시민사회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자 전주시가 숙고한 끝에 매입하기로 계획한 것임
- ✓ (* 주 - 아직 가련산공원 장기임대주택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결정이 남아 있음). 전주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임.

4-2 Why 전북환경정책상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 전주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임.
-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어울림정원' 조성 △시민들의 참여로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채우는 '시민헌수운동' △'녹색숲 조성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중임.

4-3 Why, 전북환경정책상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

도시의 허파! 도시공원을 지켜라~!

1강 19:00~20:00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신상설 교수)

2강 20:00~21:00 도시공원일몰제 바로 알기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국장 맹지연)

장소 :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
일시 : 2019. 6. 5.(수) / 19:00~21:00
주최 :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
주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생명미술



5-1 Why, 전북환경언론상 - 한범수, 조수영 기자(전주MBC)



- ✓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과 완주군 고화토 불법매립 사건을 연속보도 함(장점마을 4회 보도, 완주 고화토 불법 매립 11회 보도). 연초박과 고화토, 이 '찌꺼기'들이 어떻게 익산과 완주로 반입됐던 걸까, 바로 여기에 문제의식의 초점을 맞춰 보도를 전개했음.
- ✓ 장점마을 연속보도에서 지난 2월, 장점마을이란 공론장에 KT&G를 끌어들여 책임을 추궁했을 때만 해도 이는 '소수의견'이었지만, 최근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로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판명되었음. 더불어, 연초박이 법규범에서 오염물질이 아니기에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북도의 형식논리를 상식에 기반하여 비판 보도했음. 연초부터 제기해온 문제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해결될지 감시해나갈 예정임.

5-2 Why, 전북환경언론상 - 한범수, 조수영 기자(전주MBC)



- ✓ 고화토 불법매립 연속보도는 장점마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지역방송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환경문제만큼은 대중과 주파수를 맞추자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보도함.
- ✓ 고화토매립장의 악취문제를 짚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완주군 군정의 과오를 선도적으로 들춰고, 어느 언론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해, 불법매립장의 존재를 추가로 알리기도 함. 최근엔 완주군 출입기자가 매립장 침출수 운반용역을 따냈다며 허술한 관리문제를 짚기도 함. 완주군에 제2의 장점마을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임.

5-3 Why, 전북환경언론상 - 한범수, 조수영 기자(전주MBC)



✓ 최근 남원 대강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민원 보도 관련. 환경영향평가 회피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속 3회 보도를 통해 도의회의 관심을 이끌어 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지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녹색의 길에서
지구,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